

“기관포 장착된 헬기에 실탄 실어날랐다”

암매장 발굴로 다시 주목받는 교도관들 증언

본보 광주교도소사 입수... 헬기에 시신·부상자도 실어 트럭에 실탄 옮겨놓는 것도 목격... 80만발도 넘을 것 같아 21일 변소 뒤로 옮긴 시신 3구서 심한 최루가스 배어나와 화상환자 상당수 목격... 당시 국군통합병원 기록 살펴봐야

“(1980년 5월) 21일 오후 6시쯤 (광주교도소 안으로)차가 왔는데. 거적으로 쓴 시신 3구를 내려서 변소 뒤로 옮겼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심한 최루탄 가스가 배어 있었다.” “죽어간 사람들의 시체와 부상당한 사람들을 헬기가 와서 어디론가 실어갔다.” <광주교도소사>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발굴조사가 시작되며 당시 근무했던 교도관들의 증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1989년 국회 청문회를 비롯한 각종 기록집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교도관들의 증언은 암매장과 헬기사격 등 5·18 진상규명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발굴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도 퇴직 교도관들과 접촉을 시도하며 이들의 증언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

25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광주교도소사’를 살펴보면 제5장 ‘제5공화국시대’ 제8절 ‘5·18민주화운동과 광주교도소’에서 5·18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발간된 ‘광주교도소사’는 2015년 북구 문흥동에서 삼각동으로 이전하기 전 1908년 개청 때부터 2014년까지의 상황을 시대별로 기록한 책이다.

이 책자에 실린 한 퇴직 교도관의 기록은 무장 헬기, 계엄군의 시신 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교도관은 “(1980년 5월)25일로 생각되는 날에는 아침부터 헬기로 실탄을 계속 실어날랐다. 기관포가 설치된 작은 헬기와 큰 헬기가 번갈아가며 다니는 동안...트럭에 실탄을 옮겨놓는 것을 목격했다. ...출입이 80만 발도 넘을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또 “23일 오후 잠잠한 한 대에서 시신 2

들은 국군통합병원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에서 이 시신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군통합병원의 당시 자료 및 기록을 집중 조사하고, 훼손되거나 조작된 자료 등이 있다면 그 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5월 단체들의 주장이다.

각종 청문회 등의 자료에도 5월 관련 교도관들의 증언 기록이 남아있다.

1989년 국회에서 진행된 광주특위 현장검증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이승일 교도관은 “헬기가 와서 실탄을 내려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교도관은 “당시 공수부대 하사관데 ‘판초(넛) 세장을 가지고 시체를 10분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매장을 할 때 죽은 나무를 거기가다 꽃아

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앞산에서 동사무소직원들하고 더불어 보았더니 거기에서 시신 3구가 나왔다”고 증언했다.

이 교도관이 증언한 내용은 계엄군에 희생돼 암매장된 서만호씨로 추정된다. 서씨는 당시 5월22일 총상을 입고 숨졌고 5월27일 현 공판장 자리에서 다른 시신 2구와 함께 땅에 묻힌 채로 발견됐다.

또 다른 교도관은 “화상환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몸 전체에 화상을 입어 심한 상태였다”며 “하지만 계엄군 감시를 받고 있어 치료만 했지 환자와 대화를 하지 않아 무언에 의해서 화상을 입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말해 신근부가 부인했던 화염방사기 사용 또는 최루가스에 의한 화상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증언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5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 유족 등이 암매장지 현장확인을 하고 있다. 5·18재단 등은 오는 30일부터 교도소 부지 북쪽 구역 발굴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관사 인근 5~7구 묻었다” 새 암매장 추정지 나와

5·18 당시 3공수 부사관 제보 옛 광주교도소 현장조사 진행 발굴 총괄 조현준 전 박물관장 “기초작업 마치면 범위 나올 것”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추정지가 새롭게 나왔다. 5·18재단과 5월단체 등에 따르면 25일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 교도소 부지 북서쪽 모서리 부근이 제 2의 암매장 장소로 추정됐다. 이 부지는 5·18 직후 시신 8구가 나왔던 지점과 발굴조사를 앞두고 있는 구역과 또다른 암매장 추정지다.

5·18 당시 교도소에 주둔했던 3공수여단 부사관은 최근 “교도소 관사 인근에 시신 5~7구를 묻었다”고 5·18재단에 제보했다. 재단은 이날 제보 장소가 기존에 시

신이 나왔던 지점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펼쳤다. 현장 확인에는 교도소 부지에 암매장됐던 고구석씨·임은택씨 유족이 참여했다. 고 고구석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주목을 받은 고영태씨의 아버지다. 재단은 이곳에서도 시신이 발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18재단은 추가 검증을 거쳐 신빙성이 확보되면 이 장소도 발굴범위에 포함시킬

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단으로부터 현장 발굴 총괄을 위임받은 조현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연구소장은 이날 “중차대한 일인 만큼 현장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여겠다”며 “학술적인 방법을 암매장 발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조언하겠다”고 말했다. 30일 예정인 발굴 계획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작업을 할 것”이라며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상세한 발굴 범위와 기간, 필요한 인력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희기자 kimyh@

광산구 아파트 보육시설 임대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부영, 주민에 3억2000만원 지급하라”

광주지법, 화해권고 결정

광주 광산구 소재 한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3억20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연)는 “광산구 신창 부영 2·3·5·7차와 첨단 부영 1·6·7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기한 아파트 보육시설 임대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부영주택은 원고에 총 3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영주택으로부터 받은 돈은 아파트 보육시설과 관련된 것이며 보육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보수 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결정은 원고와 피고가 결정을 송달 받고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부영주택은 앞서 지난해 7월 신창부

영 1차 주민들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한 바 있다.

주민들은 부영주택이 입주자들의 재산인 관리동 내 어린이집을 제3자에게 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현직 세무사인 김동호 광산구의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신창부영 1차 소송에서도 승소를 끌어냈다.

김 의원은 “임대아파트의 관리동, 경로당, 지하주차장 등은 주민공동시설로 관리동 내에 있는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해 발생한 이익금은 건설사가 아닌 주민 몫이 되어야 한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여수서 목줄 풀린 개에 고교생 물려

여수에서 목줄이 풀린 개에 고교생이 물려 경찰이 조사 나섰다.

25일 여수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경 여수시 소라면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교생 A군이 목줄이 풀린 개에 허벅지를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개는 인근 재활용 수집창고에서 기르던 개였으며, 목에 묶여 있던 쇠줄이 끊어져 주변을 배회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견주인 B씨를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입건·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통근버스-승용차 충돌 23명 부상

승객 21명을 태운 통근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25일 광주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5분께 광주시 남구 칠석동 교차로에서 최모(69)씨가 몰던 45인승 버스와 서모(38)씨가 운전한 소나타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22명과 소나타 운전차 서씨 등 23명이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옆으로 넘어진 버스의 유리창을 깨고 승객을 구조한 뒤 병원으로 옮겼다.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21명은 광주에서 나주 인근의 3곳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시한부 자평 택시기사 손님 가방 슬쩍했다 뒤늦게 선처 호소



“쿠싱추후군”(얼굴이 둥글어지고 목이 굽어지는 질환)으로 5년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한 40대 택시기사가 금품이 들어있는 손님의 가방을 가져간 뒤 뒤늦게 70대 노모의 금팔찌를 가져와 용서를 구했지만 범죄자가 될 처지.

○... 25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택시기사 김모(43)씨는 지난 3일 밤 10시30

분께 손님이 놓고 내린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원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던 가방을 몰래 가져간 혐의.

○... 아들의 절도 사실을 알게 된 78세 노모는 합의를 위해 자신의 팔에 차고 있던 14K 금팔찌를 벗어줬는데, 경찰에게 김씨는 “가방에 담긴 현금을 보고 순차 약값과 어머니가 생각나 가져간 것이 지 처음부터 훔칠 생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기자 kimyh@

Aroma Life
www.aroma-life.co.kr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별단면육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대표전화 1588-2219

KCPBA 2016,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